

“행동하는 사랑”

■ 이종윤 원로목사

사도 바울은 감상적인 사랑을 넘어 악과 구별된 진실한 사랑을 로마서 12장에서 가르치고 있다.

〈**형제를 사랑하면**〉 (필라스토게)는 형제사랑(필리아)과 가족사랑(스토게)의 합성어로 형제를 가족처럼 사랑하라 한다. 그리스도인은 종족, 국적, 직업, 교육, 부가 어떠하든지 한 가족이 된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 하는 자니 보이는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형제를 사랑할 지니라.”

〈**존경하기를 먼저하며**〉 사랑엔 존경을 빼놓을 수 없다. 그 사람의 장점을 보고 높이는 마음이 존경이다. 존경하려면 내가 겸손해야 된다. 존경하되 먼저 겸손 하라 한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존경심이 사라진 오늘의 우리 사회에서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젊은 자는 장로에게 순복하고 교만을 버리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게 될 수도 있다. 사랑은 내일로 미루지 말고 즉시 해야 한다. “두고 봅시다” 할 때는 이미 사랑이 아니다. 사랑은 전쟁터의 군인처럼, 수고하는 농부처럼 도와 줄 사람이 많았는데 잠깐 늦추다가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사랑의 수고 없이 다른 기적은 바랄 수 없다. 수치 중 가장 큰 수치는 게으른 생활이다. 부지런한 것이 성도의 삶이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말은 성령으로 뜨겁게 끓다는 뜻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젖은 사람은 성령으로 끓게 되어 있다. 성령으로 뜨거워져야 무슨 일이든 감당케 된다. 미지근한 것은 주님께서 토해 내시겠다 하셨다. 이처럼 사랑엔 열심이 있어야 한다. 주를 섬기는 일은 열심을 품지 않고는 할 수 없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열심을 내어 주를 섬기는 것이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소망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으로 그 소망 때문에 성도는 즐거워한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고” 즐거워했다. 대개 불신자는 과거는 미화하고, 현재는 고통스럽다 하고, 미래는 절망적이라 한다. 그러나 신자는 과거엔 멸망의 자식이었으나, 현재는 감사가 충만하고 미래는 약속을 바라보고 기뻐한다. 전자는 갈수록 태산이지만 후자는 갈수록 희망적이다.

〈**환난 중에 참으며**〉 환난을 만날 때 참을 수 있을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환난이 손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선(구원)을 이루신다 했으니 참을 수가 있고 기뻐할 수가 있다. 나는 운동 경기를 실황중계보다 재방송 보기를 좋아하다. 결과를 알고 보는 시청자는 가슴조일 필요가 없다. 오히려 아슬아슬할 때 더 스릴을 느끼며 그러나 이기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즐길 수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통해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을 이루신다.

〈**기도에 항상 힘쓰며**〉 기도하되 숨을 쉬듯 항상 해야 한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의인의 기도와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우리 주님은 “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셨다.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했다. 해석상 난해 구절이다. 주님은 십자가 죽음을 면해 달라 하신 기도를 하셨나? 그렇지 않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자기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수차례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기도는 죽을 지경의 고통에서 건져달라는 기도였다. 그 고통은 “남의 죄를 지시는 고통”과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고통”이었다. 예수님은 그 고통을 잊기 위한 또는 어떤 방법도 취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하실 만큼 천사가 시중드는 응답의 표시를 받으시고도 다시 우리를 위한 기도를 힘써 하셨다. 이것이 성도가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이고 기도자의 황금률이다.

-한국장로신문 [제 1584호] 2018년 2월 17일 발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1년도 흥해작전을 시작하는 주일입니다. 매년 흥해작전 때마다 하나님께서 흥해의 기적과도 같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며 서울교회를 지키시고 회복시켜 오셨습니다. 손달익 목사님을 담임목사로 청빙하고 시작하는 올해 흥해작전에 서울교회의 완전한 회복의 기적같은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함께 흥해를 건너는 기쁨을 체험하시길 소원합니다.

교회당에 방역대책이 안전하게 세워져 있으므로 안심하고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상황이 아닌 한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시면 좋겠습니다.

※ 주일 1,2,3부 예배, 오후 찬양예배, 수요 1부 예배를 본당에서, 수요 2부 예배는 웨민홀에서 드립니다.

본당 2,3,4층에 입장하신 후에는 반드시 ‘예배석’ 표시가 부착된 좌석에만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주에는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가 대면예배로 드리며, 새벽기도회와 영·유아부, 유치부는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 방역, 교인확인 및 지하주차장 이용 안내

기존과 같이 1층 현관 앞 또는 지하주차장 주차 시 지하1층에서 발열체크 후 교인확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사정상 교인증이 준비되지 못하신 분들은 수기대장 작성 후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 실시간 영상예배 접속방법은 이전과 같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ziHchZPo8YwmR9UYpoXJrA>

주일예배순서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 예배 순서 및 영상예배 지침

http://www.seoulchurch.or.kr/upload/20210606_sermon.jpg

서울교회 당회 드림

우리의 비전 (vision)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서울교회QR코드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부 목 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전도사 박미라 안용곤 준전임전도사 강남희 교육전도사 허은 양하림 이대원 정기성 김예지 협동목사 김의창 심우진 전재홍 선교사 권경태(서아시아), 이은준·강해경, 양재성·이현주(카자흐스탄), 이경엽, 조남혜(벨기에), 조병연·김희경, 우상식·김정욱(인도),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김진경·황경혜(말리우), 김영호·서향정(러시아), 허창범·함미순(일본), 김낙형·오정녀(캐나), 김종일·백승미(미국인 노동자), 박명성(총회), / 이삭, 비스타파, 사지, 에녹(인도), 스토르토바로이, 필리몬, 프로산도, 수세시, 수바스, 알로롱, 비시누보도, 보디소도, 린룸, 수란존(벨기에) / 김태식, 윤왕도, 이금순, 김영일(군선교) / 정상진·홍성임(말리우), 이재울·박병진(캄보디아), 이재훈·박재연(마다가스카르)



“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

■ 대하 32:20-23

본문은 히스기야 왕 시대에 발생한 앗수르 군대의 예루살렘 침공 사건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BC 721년 앗수르의 군대가 북 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점령함으로 210년간 지속된 북 왕국 이스라엘이 마침내 패망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아홉 번의 유혈혁명으로 왕조가 바뀌고, 열아홉 명의 왕이 나라를 다스렸지만 강력한 앗수르의 침공 앞에서 맥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20여 년 후 BC 701년에 앗수르의 산헤립 왕이 보낸 군대 18만 오천 명의 대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능욕하고 조롱하며 항복을 종용했습니다. 백악이 무효하고 모든 외교적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 선지자는 옷을 찢고 티끌을 뒤집어쓰고 통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환난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기도해야 할 시기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일어설게 됩니다.

1. 앗수르의 침공과 히스기야의 기도

BC 701년 앗수르의 산헤립 왕이 보낸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앗수르는 중동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항상 이 집단을 견제해야 했고 이집트의 세력이 복직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그 중간에 위치한 유다 왕국의 협력이 절실했는데 유다 왕국은 전통적으로 언제나 친 이집트 정책을 펴고 있었습니다. 이집트와 유다 왕국이 밀월관계를 유지하면 군사, 통상, 외교 등 여러 분야에서 앗수르는 곤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변국 모두를 점령한 앗수르가 마지막으로 유다왕국을 정복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포위한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비상한 각오로 대처했습니다.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쓸모없었습니다. 모든 노력이 무위로 돌아갔고 위기는 점차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때의 심정을 이렇게 토로합니다.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과 같도다”(사 35:3). 이 상황에서 본문이 시작됩니다. 20절은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라고 했습니다. ‘이러므로...’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모든 방법이 소용없음으로, 이 세상의 그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국민들은 공포와 두려움에 빠져있음으로 또는 매뉴얼대로 진행한 모든 대책이 실패했으므로.’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시도가 실패로 끝나고 그들이 위기와 절망의 벼랑에 서게 되었을 때 히스기야와 이사야가 선택한 마지막 방법이 기도였습니다.

2.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특히 위기 중의 부르짖음에 속히 응답하십니다.(시 50:15, 렘 33:3) 기가 막힌 위기 상황에서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 선지자가 함께 말 그대로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사 37:1,2에 의하면 왕과 모든 종신들과 제사장 중 어른들 즉 고계의 지도자들이 함께 베통을 입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자에게 ‘앗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고 응답하셨습니다. 그 후에도 히스기야는 자신이 중병으로 죽게 되었을 때 낱을 벽으로 향하여 기도하여 15년 동안 생명연장의 복을 누렸습니다.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고 하나님의 사선이 우리를 향하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지를 예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심을 믿고 기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3. 기도 후의 큰 은혜

히스기야는 집권 이후 최대의 국가적 위기를 군사 한 사람의 회생이나 피 흘림도 없이 극복했습니다. 히스기야를 비롯한 모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전쟁 없는 승리에 감격하고 감사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전쟁을 부추기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전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악을 근절시키는 것은 악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악을 수단으로 사용하면 악의 수명은 자꾸만 연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칭찬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은 그가 평화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위기와 도전은 언제나 있습니다. 그리고 극복의 길도 주님 안에서 언제나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옌 6:12에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우리를 위해 주님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악의 세력을 이기고 가정과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평화를 만듭시다. 기도로 이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존귀와 영광과 형통을 선물하실 것을 믿습니다. 본문은 ‘이러므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방법이 없으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도우시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응답 이후에도 더 크게 축복하시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하였습니다.

이번 주 손달익 목사 설교 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일예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간	인도	기도
Time	Prsider	Prayer
I 오전 9시	장석남 목사	최광성 장로
II 오전 11시 20분	서명철 목사	안인호 장로
III 오후 2시	전재홍 목사	전재홍 목사

입례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예배예의 부름 Call to Worship시 29:11... 인도자
 기원 Invocation 인도자
 * 찬송 Hymn6(8)... 다함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함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40(시 96)... 다함께
 * 송영 Doxology 1(1) ... 다함께
 기도 Prayer 말은이
 찬송 Hymn36(36)... 다함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대하 32:20-23... 인도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함께
 봉헌 Offering 다함께
 * 봉헌송 Offering Hymn634(70)... 다함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인도자
 찬양 Anthem 찬양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함께
 설교 Sermon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손달익 목사
 * 찬송 Hymn365(484)... 다함께
 * 축도 Benediction 설교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함께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찬양예배

오후 5시 ·인도: 조원영 목사, 설교: 손달익 목사

목도 다함께
 성시 출 15:6-7 인도자
 찬송 22(26) 다함께
 기도 옥종호 집사
 성경 수 1:1-9 인도자
 흥해작전 발대식 말은이
 찬양 찬양대
 설교 ... “하나님의 진군명령” ... 설교자
 * 찬송 359(401) 다함께
 * 축도 설교자
 * 주기도송 다함께

수요예배

I부 오전 11시 ·인도: 서명철 목사
II부 오후 7시 ·설교: 손달익 목사

기도 I부: 한은미 권사 II부: 김명심 권사
 성경 수 1:10-18 인도자
 찬양 찬양대
 설교 ... “보내시는 곳으로 가리이다” ... 설교자

흥해작전 특별새벽기도회 (인터넷 영상)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흥해란·김양언·박수강·김복희2
 설교6.7(월)-9(수)..... 서명철 목사
 설교6.10(목)-12(토)..... 장석남 목사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분		시간	장소
주일예배	I부 예배	오전 9시	본당
	II부 예배	오전 11시 20분	
	III부 예배	오후 2시	
	찬양예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20분	웨스트민스터 홀
수요예배	I부 예배	오전 11시	본당
	II부 예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웨스트민스터 홀

교회소식

- ◆ 모임
- 정기당회 / 6월9일(수) 오후 5시 402호
 - 알림
 - 101호 예배
청년부 예배 : 오후 2시
 -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 20분-11시
 - 403호 예배
영아부 :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 501호 예배 및 부서 예배
중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 601호 부서 예배
초등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 20분-12시 30분 / 청년2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 30분-5시
 - 602호 부서 예배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 20분
 - 603호 부서 예배
소망부 : 주일 오후 12시 40분 / 청년1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 30분-5시
 - 609호 부서 예배
청년2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 30분-5시
 - 701호 예배
유년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 20분-12시 30분
 - 702호 예배
유아,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 20분-12시 30분
 - 흥해작전 / 2021년 흥해작전이 2021년 6월 6(주일) ~ 6월 25일(금) 17일간(주일 제외) 계속 됩니다. 흥해작전 새벽기도회는 6.7(월)-6.16(수)일은 새벽 5시 30분, 17-25일은 특별새벽기도회로 5시에 시작합니다. 새벽을 깨우고 나와서 국가와 민족, 교회와 개인과 가정을 위해 힘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제: “주여,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우소서!”
 강사: 6.7(월)-9(수) 서명철 목사(온라인예배)
 6.10(목)-12(토) 장석남 목사(온라인예배)
 6.14(월)-16(수) 조원영 목사(온라인예배)
 6.17(목)-25(금) 손달익 목사(대면예배 및 예배실황 중계)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2. 세례식 신청 마감 - 금년도 2번째 세례식인 6월 세례식이 6월 20일(주일) 저녁 찬양예배 시 있습니다.
 세례/입교/개종/유아세례/대상자 문답청원서 작성 및 신청 마감(사무국) : 6월 6일(주일)
 문답 총정리는 6월 13일(주일) 오후 1시 609호실에서 있으니 대상자는 필히 참석 바랍니다.
 문답은 6월 13일(주일) 오후 2시 609호실에서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세례교육부 010-7743-3223)로 문의 바랍니다

13. 이번주 심방 일정
 4-1, 5-5, 9-4, 13-15, 14-5다락방

지난주 출석현황(인터넷 영상예배 포함)

주일 1,2,3부	찬양예배	주일예배 합계	수요예배	새벽기도
1,927명	1,107명	3,034명	446명	1,440명

웃으려면 울어라

웃음은 기쁨의 표시라면 울음은 슬픔의 표현이다. 그러기에 울면서 살기를 바라는 자보다 웃으면서 살기를 좋아하는 이가 많다. 그러나 웃기 위해서는 먼저 울어야 한다. 가을에 웃으려면 봄에 울어야 한다. 수고와 아픔이 없이 힘들다고 포기하면 추수의 기쁨은 맛볼 수가 없게 된다. 고통이 오고 눈물이 나도 씨를 뿌려야 가을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법이다.

노후에 웃으려면 젊을 때 울어야 한다. 젊은 날에 주색잡기에 밤을 보내고 향락에 빠져 날을 보내면 늙고 병드는 날 울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긴 세월 동안 형설의 공을 닦거나 주림과 험벗음을 견디면서 성공한 이들의 이야기는 수없이 많다.

영원히 웃으려면 현세엔 울어야 한다. 영원히 슬피 울며 가슴치며 이를 가는 저주받은 영원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축복받은 영원을 얻으려면 회개의 눈물이 먼저 있어야 한다. 천국은 마른 눈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이종윤 원로목사 신앙칼럼 '순례자'에서-

청결유지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합시다.
에너지절약	불필요하게 전기를 켜놓은 복도와 화장실 전등을 끄시다. 방을 사용한 후 나올 때 반드시 전기(전등, 플러그, 마이크 등)를 끄고 나오시다.
주일성수	주일은 예배와 전도하는 날입니다. 가급적 회의를 줄이시고 예배와 전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양대						봉헌송		
예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부	가브리엘	백경화	이수경	정혜은	윤주일	가브리엘		
II부	할렐루야	류총기	차주연	김양언	윤주일	그레이스헨드벨	송재월	
III부	임마누엘	유태왕	전지희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련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임범창	안효주	박수강	윤주일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대하 32:20)		
영어예배	예루살렘				금주의 성구			
수요 I부	호산나	구민영	안효주	흥해란				
수요 II부	시온	최유현	김예지	조현정				